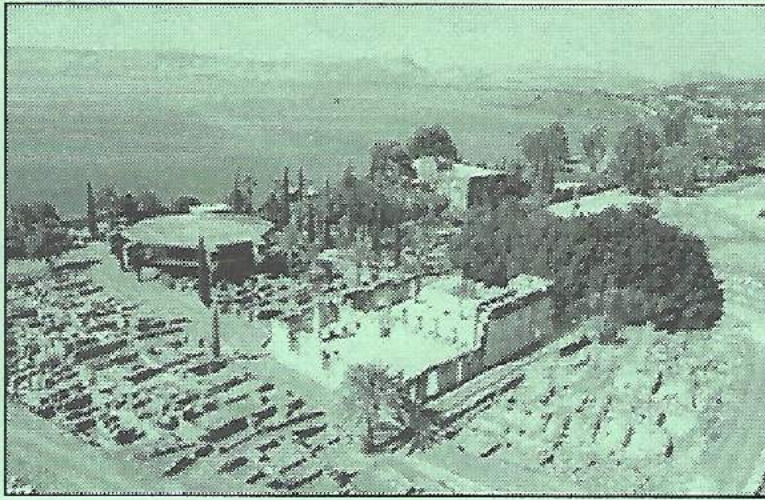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4주일
제36권 10호(다해) 2016년 1월31일

[묵사]



< Synagogue at Capernaum 카파르나움 회당 유적지 >

좁은 쏘가지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좁은 소견 등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혈연, 지연등 일방적인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묶어 버리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
받아들이려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

우리도 편협된 생각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사랑하자.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6: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우리아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주임신부 : 오장근 페드로 (310)326-4350 Ext.106
진교수녀 : 김임식 파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제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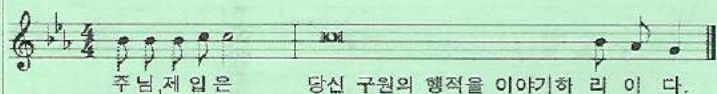
한국 교회의 역사

토요 저녁 미사	(연)배덕환 요셉
미사	(생)장기호 바오로 가족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현시영 요셉,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이종수 마틴, Robert Polk, 김인영 베드로, 이용관요셉, 김준경 요한, 경진요셉, 최선옥마리아, 원금봉안나, 박정숙 베로니카, 프란치스코 하이늘, 이사범 로벨또, 박희성 테레사 & 김계성 아가다, 김용팔 다두
	(생) 정동호 하상 바오로, 이용운, 이서연 프란체스카, 남성철 베네딕도, 이감열 바오로, 박정미 클라라, 황윤제 베드로가정, 김리사 엘리사벳, 김문수 미카엘 & 용희 아이리스가정,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 1,4-5.17-19

화답송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 하리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바위, 저의 보루시옵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옵니다.◎
○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제 2독서 코린토1서(1Corinthians)12,31-13,13<또는 13,4-13>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복음 루카 (Luke)4,21-30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3. 신자들의 생활

3-1. 신앙생활

그들은 천주교의 가르침을 사학(邪學)으로 규정하던 지배층에 대항하여, 천주교만이 정학(正學)임을 강변하기도 하였다.

한편 박해 시대의 신자들은 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 밖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과 자신의 신앙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중되던 가치는 충효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육신이나 심청이처럼 죽을 수도 있음을 강조해 왔다. 여기에서 그들은 하느님을 대군대부로 섬기는 충효의 영성을 개발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섬김의 생활을 통해서 사주구령(事主救靈: 주를 받들고 자신의 영혼을 구함)의 영성을 실천하였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살이와 살림살이를 통해서 종말론적 영성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당시 집권층에서는 천주교를 불충불효의 종교로 규정했고, 무부무군(無父無君)이라 매도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은 당시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볼 때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박해 시대의 천주교자들은 이에 대한 대항 논리(對抗論理)를 구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느님이 대충대효(大忠大孝)를 받아야 할 대군대부(大君大父)임을 밝혔다. 이 대항 논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천주교 신앙에서는 충효가 전제되고 있었다. 그들은 충효라는 전통적 가치를 하느님께 적용했고, 하느님의 충신이 되고 효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선비와 열녀가 되어서 하느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조선의 전통적 가치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창조적으로 조화시켜 나갔다.

그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실천한 충효는 유교적 가치일 뿐 아니라 불교적·무교적(巫敎的) 가치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당시의 사상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신앙을 키워 갔다. 당시 조선 문화는 불교나 도교, 민간 신앙 등 여러 종교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403	249	249
봉헌	265	269	217
성체	295	106	286
파견	198	227	191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나자렛 사람들은 이 지역 출신의 젊은이인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의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의혹이 꼬리를 물니다. ‘우리 동네에서 저런 선생이 나왔다고?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기적까지 했는지? 그런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가르칠 자격은 되나? 어디서 배웠지? 누구에게서 저런 힘을 받은 걸까?’

묻기만 하지 믿지는 않는 고향 사람들. 예수님은 이들을 두고 한탄하시면서 이전에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예언자를 믿어 기적을 입은 예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폭발합니다.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사람들끼리 드잡이 잘 할 때나 입에서 나올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뿔어져 나옵니다. 경탄에서 질시로, 그리고 분노로 이어지는 마음의 흐름은 예수님을 머랑까지 끌고 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폭력적인 해결책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절한 권리가 당연히 주장해야 하겠지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매년 폭력의 고리로 마음을 올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평화는 스스로 체험하고 살기에 남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자기 스스로 평화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평화를 지켜 가면서 다른 이들도 함께 평화에 물들여 가는 이들이 평화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렇듯, 나를 무시하는가 아닌가로 마음에 천불이 치솟고, 말투가 변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뀝니다. 정작 우리 자신은

고의로 남을 무시하는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당할 때는 남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추정하고, 나 스스로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십니다. 남들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분은 무시한 적이 없으시지만 무시했다고 오해받고 위협에 처하십니다. 경탄에서 질시로, 질시에서 분노로 옮겨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시당한 분은 오히려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무시당하는 편에서 살아가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갈 길을 가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 뒤에,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스승으로 모신 우리에게, 남을 무시하는 것도, 남에게 무시당했다 하여 곧바로 분노하는 것도 둘 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의 계명 안에서 우리는 무시하는 태도도 버리고, 무시당했다고 스스로 내 안으로 말려들어 가 버리는 태도도 버립니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예레 1,19)이 믿음 안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루카4,30) 가시는 예수님과 일치합니다.

◆ 손경락 사도 요한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민 히메리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민상 요한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도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한경숙 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현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신부님 사제 서품일 축하드립니다.
 2월1일은 본당신부님의 제 24주년 사제 서품일입니다. 신부님으로 탄생하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님 봉헌 축일
 주님 봉헌 축일에 제대초와 개인초를 봉헌하신 분들 중 개인초는 2월 2일 미사 축성 이후 성물 판매소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 미사시간: 2월2일(화)저녁7시30분

-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회수... 오늘주일(31일)까지

- ◆ '설날' 합동 위령미사
 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 친지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설날 합동 연 미사를 봉헌합니다.

- 미사: 2월8일(월) 오전 8시30분, 저녁 7시30분
 연도와 분향이 있습니다.

- 미사후 떡 나누기
- 미사예물 봉헌: 사무실

- ◆ 요셉회 설날 잔치.

- 일시: 오늘 주일 (31일)11시 미사 후
- 장소: 강당
- 행사내용: 율놀이, 제기차기,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 많은 행사 및 푸짐한 점심이 있습니다.
- 대상: 요셉 회원 및 65세 이상 요셉회 대상자 부부환영
- 연락처: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3월 4일 (금) ~ 3월 6일 (일)
- 장소: St Anne Retreat Center
 30480 Fredalba Rd Running Springs, CA 92382
- 참가비: \$60 (1/24~2/21 등록시), 이후 \$85
- 준비물: 성경, 묵주, 슬리펍백, 두꺼운 재킷, 세면도구, 필기노트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8학년 - 12학년
- 일시: 7월 29일 (금) - 7월 31일 (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참가비: \$200 (환불 불가능)
- 신청기간: 1월 24일 - 2월 28일 (주일학교 주최 행사가 아니므로 마감일 이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선착순 30명
- 문의: 김낙기 주일학교 교장 310)709-3343

- ◆ 백삼위 서예반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2시~4시
- 장소: 2층 유아실
- 문의: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 2015년(작년) 교무금/성전현금 봉헌내역 가정통신문 발송 안내

작년 한 해 동안 봉헌해주신 교무금과 성전현금, 감사현금, 특별목적현금 내역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교우 여러분 각 가정에 우송합니다. 가정 통신문의 봉헌 내역은 인컴택스 리턴(개인세금보고)을 위한 현금증빙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외의 기부금을 추가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 31일 *토남1,2반: 전주식 콩나물 국밥(\$3)
 * 주일학교: 샌드위치(9학년)
- 2월 7일 * 소공동체: 김 밥 (\$4), 컵라면 (\$2)
 * 주일학교: 짜장밥 (4,7 학년)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성전현금
강미순 권오상 김교복 김상규 김선영 김 은 김일선 나경흠 박종민 반정미 송기철 송영미 안종연 양영관 오상준 이정분 이종선 임한나 장영진 정동호 정정현 채양석 한장환 황지영 이크리스	강미순 권오상 김교복 나경흠 안종연 양영관 이정분 임한나 장영진 정동호 정정현 한장환 황지영 이크리스
합계:\$2,745	합계 : \$1,115
주일미사 현금 :\$3,085	

◆ 위안부문제 서명운동-2월 14일까지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개편하면서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위안부 만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역사교과서를 개편하는 내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 현재 그 개편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2월 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메일 주소는 HSSframework@cde.ca.gov 이고 이 주소로 들어가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교육부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의견 수렴에 참여하실 한인들을 위해 구축한 사이트 주소는 www.comfortwomenpetition.org입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클릭하면 아래 첨부 내용과 함께 교육부 메일로 전송됩니다.

● 세 번째 방법은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본당에서 모아서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인 Young Kim 의원에게 전달하면 교육부에 제출해 주기로 하겠다고 합니다.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 한국학교 2 학기 (2월 7일~6월 19일) 등록
 - * 1월 31일까지 등록시 20% 할인혜택 (SAT 반 제외)
- SAT 한국어 시험 준비반 개강 (2월 7일부터)
 - 대상 : 8 학년 이상 (수강료 \$ 200.)
- 성적 우수자 시상식 - 오늘 주일(31일) 학생미사 중
 - 개나리 반 - 서윤아, 신환희, 무궁화 반 - 김서연, 박대이
 - 해바라기 반 - 현미나, 장은혜, 장미 반 - 최지인
 - 코스모스반 - 권예은, 장은서, 민들레 반 - 윤서, 최준민
 - 수선화 반 - 정영현, 이시우, 진달래 반 - 박소은, 장운서
- 학부모 간담회 : 2층 유아실
 - * 주제 : 학교와장소의 소통 그리고 건의사항
 - * 일시 : 오늘주일 (31) 오후 2시~3시
- 백삼위 한국 학교 성인 반 모집
 - *과정 : 한글 기초, 읽기 쓰기반
 - *매주 금요일 (7:00~8:30pm)
- 한국 학교 설날 행사
 - 일시 : 2월 7일 오후 12시 ~ 3시
 - 내용 : 신부님께 세배하기, 전통놀이 하기, 음식 나누기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자주 소식

◆ 성 아그네스성당 커피교육 33기안내

- 일시: 2월 21일 (주일) 낮 1시~5시, 2월 22일 (월) 저녁6시 ~10시 택일하여 하루 교육, 3시간강의, 1시간실습
- 첫 교육후 10회실습
- 장소: 성 아그네스 성당 회의실
- 주소: 1451 Dana St. LA, CA 90007 ☎323-731-4433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번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오신계 메히틸다 1/12(화) 오후 4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한창주 요아킴 1/09(토) 오후 6시, 강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1/15(금) 오후 7시30분, 강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엄혜은 도로테아 1/16(토)오후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정남형 알베르토 1/09(토) 오후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정 헬레나 1/16(토) 오전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정희 아네스 1/17(주일) 오후1시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1/12(화) 오전11시30분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이재용 안드레아 994-6782 1/23(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김병태 요셉 1/18(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1/16(토) 오후 7시 성당
P. V. 남정희 베네딕도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도 384-3289	구역미사 남성철 베네딕도 1/22(금) 오후7시, 377-6659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구역미사 남성철 베네딕도 1/22(금) 오후7시, 377-6659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구역미사 남성철 베네딕도 1/22(금) 오후7시, 377-6659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구역미사 남성철 베네딕도 1/22(금) 오후7시, 377-6659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1시
-----------	----

[길을 찾는 그대에게]

화를 내면 참아주고, 항상 먼저 양보해주었더니 그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저도 화가 나는데, 싸우기가 싫어서 그냥 혼자 분을 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서 화가 점점 치밀어 올라 참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 화를 너무도 참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느낀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화는 무엇이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생기는 감정이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화는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마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가 나신 이유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해서인 듯합니다. 사람들의 탓도 있겠지만, 내 생각이나 마음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보하고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합니다. 상대도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나를 위해 양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나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화가 날 때,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그때 그 감정 그대로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메시지는 화가 난 마음을 이해받고 싶은 것이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보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내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무시당하는 기분이예요.’ 라는 식의 표현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간을 들여 연습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 홍성민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리 상식]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교의 한자 표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 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파를 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를 가톨릭으로, 모든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 「PD 하느님, DJ 예수님」 / 바오로의 딸

[햇볕 한줄] 사랑받은 기억

1865년 어느 겨울밤, 한 여인이 태어난지 20개월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안고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더니 주변을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길을 잃은 여인은 사력을 다해 도움을 외쳤지만 여인의 함성은 강한 바람과 하얗게 내려 앉은 눈발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눈보라는 그치고 언덕을 넘던 한 남자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속옷차림으로 얼어 죽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아기에게 자신의 겔옷을 말아 감싸 안은 채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겔옷을 벗기자 갓난아기가 몸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 추위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지만, 아이는 살린 것입니다.

이 아이는 훗날 영국의 53대 수상이 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1863~1945)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들으며 자랐고 자신을 위해 생명을 버린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기억을 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수많은 인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조건 없는 희생과 넘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이라는것

스무살에 쓴 일기는 모두 연애편지 같았는데

선이 넘으니 하루 일과의 기록조차 반성문같구나.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우스개조차 유언으로 읽힐라.

칠십 넘으니 아침마다 밥숟가락 각서 쓰듯 들게된다시던 올 아버지,

이제야 겨우 당신의 그 말씀이 떠들떠들 읽히네.

-이영 아네스-

사랑을 실천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을 실천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한 율법 교사가 다가왔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인사를 한 후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전혀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엔 무엇이라 쓰여 있느냐고 묻자 그 율법 교사는 무엇이라 대답했나요? 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0, 25-29

율법 교사는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가 버렸습니다. 길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을 못 본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0,30-32

강도를 만나 다친 유다인을 보게 된 한 사마리아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그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환자를 돌보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0,33-37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민족은 본래 조상이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앗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강제로 이민족인 앗시리아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보존하지 못하고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개에 비유하며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에서 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스라엘 사람을 측은히 여겨 돌보아 준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잘 실천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네 ()을 다하고 네 ()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루카 10,27)

율법 교사가 “그에게 ()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

(루카 10,37)

[성인말씀]

오, 주님, 당신을 위하여 제 뜻과 제 소망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에서
제가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 성녀 레오니 프랑수아즈 드 살 아비아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1-855-388-4141

썬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애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아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Bl. #1110 LA(에퀴터빌)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점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웁(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B6589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혜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매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키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알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